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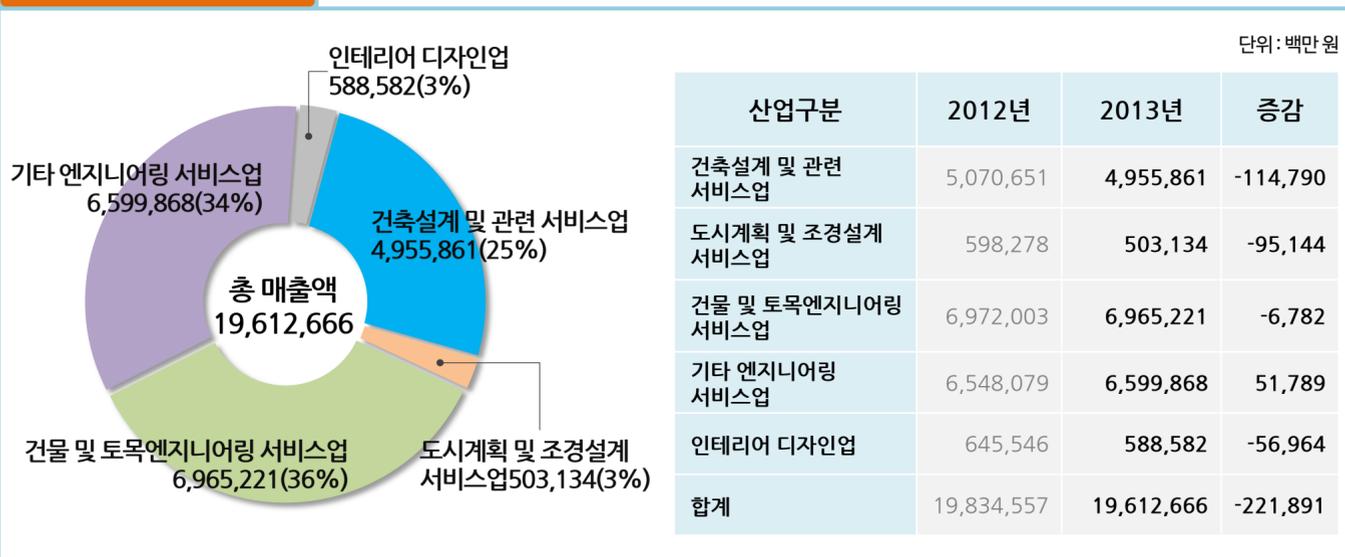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현황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총 매출액 규모는 2012년보다 221,891백만 원 감소한 19,612,66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매출액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빠르게는 2009년부터 감소해 왔으며, 2012~2013년에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 졌다. 특히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서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매출액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 규모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가 전체 36%로 가장 높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의 3%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는 매출액이 가장 높으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200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최대매출액 분야가 변동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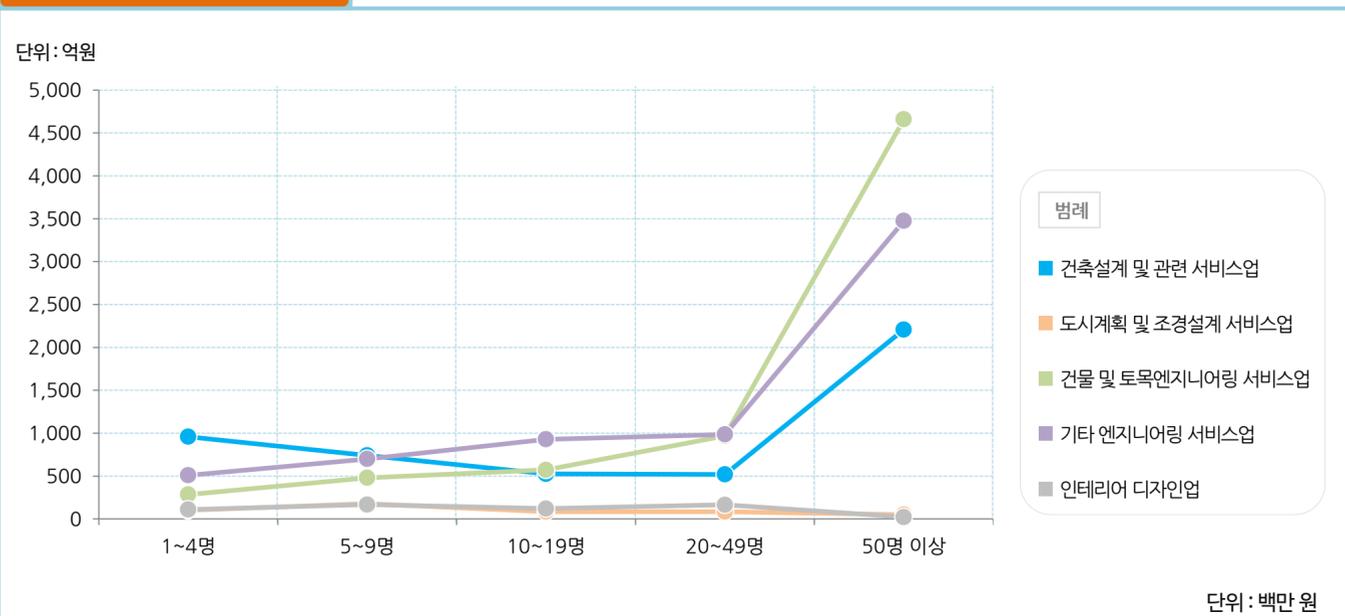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매출액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체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0명 이상 대형 사업체의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50명 이상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50명 이상 사업체에서의 매출액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는 '50명 이상>1~4명>5~9명>10~19명>20~4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5~9명>1~4명>20~49명>10~19명>50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문은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규모도 높게 나타났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5~9명>20~49명>10~19명>1~4명>50명 이상'의 매출 순서를 보였다.

2013년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현황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계	19,612,668	4,955,862	503,133	6,965,222	6,599,869	588,582
1-4명	1,967,300	959,488	102,026	285,401	509,589	110,796
5-9명	2,269,004	742,206	178,059	480,643	699,776	168,320
10-19명	2,235,015	526,068	85,694	572,795	928,774	121,684
20-49명	2,725,130	520,120	85,990	967,379	986,184	165,457
50명 이상	10,416,219	2,207,980	51,364	4,659,004	3,475,546	22,325

<2013년 전문분야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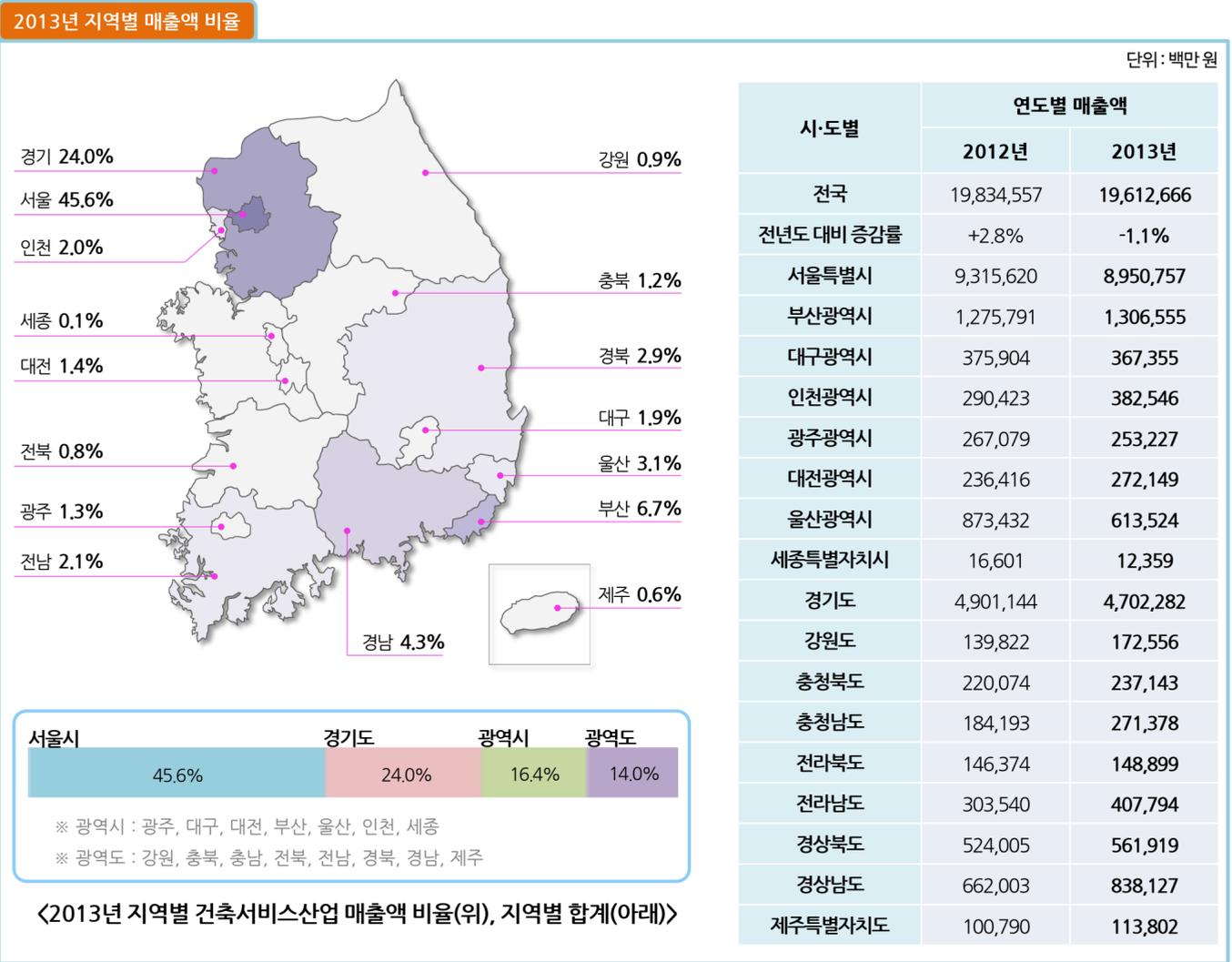
자료 : 2015,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013년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규모

지역별 매출액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약 19,6조원 중 45.6%(약 9.0조원)가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의 매출액이 24.0%(약 4.7조원), 부산광역시가 6.7%(약 1.3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 상위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 매출액은 약 3,3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세종시의 경우 2,000억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매출액 합계 비율은 30.4%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광역시는 16.4%, 광역도는 14%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광역도의 종사자 규모 합계는 각각 32,161명, 32,980명으로 경기도(34,561명)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출액 부문에서는 최고 10%까지 격차가 있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지역 및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

지역별 전문분야 매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주요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북 등 6개 지역이었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종사자 비율이 36.3%에 불과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매출액의 6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비율 대비 매출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업분야·종사자규모·매출액 비율간 격차가 심해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